

석유화학도 한국-프랑스 협력 동참

한·불테크 4월 6-8일 열려 ... 삼성Atofina “기업 인지도 상승 기회”

한국형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념하고 한국·프랑스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에 프랑스기업을 알리는 것을 비롯한 각종 교류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한·불테크가 4월6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.

2004년 4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한불테크 프랑스 산업박람회에서는 석유화학, 에너지, 우주항공, 교통 분야 등 중공업에서부터 경공업과 IT,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첨단기술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관된 전시가 이루어진다.

또 한불테크 전시장 이외의 여러 회의장에서 심포지엄, 세미나, 토론회 등 새로운 한국·프랑스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각종 기술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개최된다.

행사기간에는 한국 주재 프랑스대사관 과학기술과 주최로 <바이오테크놀로지 세미나>가 한불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절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다.

행사에는 한국·프랑스 조인트벤처기업인 삼성Atofina를 비롯한 Rhodia, Nexans 등 화학기업들을 포함 총 54개 관련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.

삼성Atofina 관계자는 “그동안 삼성종합화학이 삼성Atofina로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삼성종합화학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”며 “일반인들에게도 삼성Atofina의 존재를 확실히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행사를 통해 많은 프랑스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했으며 실제로 한·프 기업인들의 만남의 자리는 4월6일로 예정돼 있다.

4월 열리는 한·불테크에서는 산업과 기술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 전시회, 프랑스 상품 프로모션 행사, 와인 프로모션 행사 및 각종 문화 예술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. <한기석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3/03>